

전 지구적 공간 탐구... ‘예술울림’ 장 펼쳐진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내달 7일 개막

창설 30주년에 개최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비엔날레 행사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 (Pansori,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86일간 펼쳐진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개막 30일을 앞둔 8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컬처스퀘어에서 홍보관 오픈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판소리 미학 펼쳐진다

이번 광주비엔날레 아트씬은 크게 세 축으로 나뉜다.

먼저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본관전시, 광주 최초 근대식 마을로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남구 양림동, 창설 30주년을 기념해 역대 최대로 기획한 파빌리온 31곳이다.

양림동까지 이어지는 본전시에는 30개국 72인의 작가가 참여한다.

광주비엔날레의 큰 주제는 ‘판소리’로 공간(판)에서 울려 퍼지는 여러 소리라는 개념에 착안했다.

동시대 미술을 통해 기후위기, 서식지 파괴, 분쟁 등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는 전

‘판소리, 모두의 울림’ 주제 광파르 30주년 역대 최대 파빌리온 31개관 ‘대한민국 미술축제’ 연계 홍보박차

지구적 공간을 탐구하겠다는 복안이다. 광주비엔날레 본관전시는 △부딪침소리 (Larsen effect) △겹침소리 (Polyphony) △처음소리 (Primordial sound) 3개 섹션으로 구성되며 음운 현상과 관련한 개념이다.

양림동의 경우, 일상생활 속 장소에서 예술과 삶의 공존, 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옛 파출소와 빈집을 비롯해 유수의 갤러리 8곳에 소리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협업 작업이 진행되며 줄리안 아브라함 토가(Julian Abraham Togar), 리디아 오라만(Lydia Ourahmane), 전형산(Jun Hyoung San), 마리나 로젠펠드(Marina Rosenfeld), 사단 아피프(Saadane Afif), 김자이, 김형숙, 안젤라 블록(Angela Bulloch), 김영은, 미라 만(Mira Mann) 등의 작가가 참여한



오는 9월 7일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개막하는 가운데 지난 5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에서 진행된 ‘마당 스케치북’ 그림 대회.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다. 관람객들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이외에 양림동 곳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현대미술을 접할 수 있다.

파빌리온은 광주지역의 미술관, 갤러리, 문화기관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5·18기념문화센터 등지에서 펼쳐진다. 국가관 22곳과 해외 문화기관 9곳을 합쳐 역대 최대 총 31개의 파빌리온이 설치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참여

가 두드러지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야심차게 준비한 파빌리온 ‘광주관’이다. 올해 신설된 ‘광주 파빌리온’은 안미희(전 경기도미술관장_ 기획자 지휘봉을 잡고 ‘무등: 고요한 긴장(광주시립미술관)’이라는 주제 아래, 광주비엔날레 존립 이유인 ‘광주정신’을 조망한다.

●할인행사 기대 고조

올 하반기에는 광주비엔날레 이외에도

여러 미술축제가 연이어 예정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오는 12월까지 ‘대한민국 미술축제’ 기간을 지정하고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서울 아트위크,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등 주요 미술행사 연계를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한다.

대표적으로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통합권이다. 인터파크에서 판매되는 광주·부산비엔날레 통합권은 30% 할인 혜택이 적용된 입장권으로, 두 비엔날레 기간에 전국 48개 국공립 및 사립 주요 미술관 무료입장 또는 할인 혜택까지 같이 누릴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승차권과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을 연계한 특별 철도 관광 상품을 8월7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비엔날레 입장권은 3000원 할인해 1만5000원에 판매되고, 철도 승차권은 시간대별로 5~40% 할인된다.

공식 개막 하루 전인 9월 6일 열리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는 소설가 한강 작가의 글을 기반으로 한 참여 작가들의 새로운 형식의 실험적인 개막 공연이 선보일 예정이며, 아울러 학술 심포지엄도 9월 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이상협 아나운서와 함께 ‘11시 음악산책’

27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오전의 여유와 환기의 시간으로 안내하는 광주예술의전당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이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하반기 첫 무대는 ‘이상협(사진), 당신에겐 가까운 바다가 있나요?’라는 주제로 오는 27일 오전 11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콘서트 가이드로 나서는 이는 방송과 언어 사이를 음악으로 잇는 아나운서 이상협. 그는 KBS 클래식FM ‘당신의 밤과 음악’ DJ, 뉴스 앵커라는 본캐와 함께 시인, 음악가, 로드 다큐 프리젠테, 미디어 아티스트 등 여러 활동을 겸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동상 수상, 음반 ‘봄, 밤’, ‘GO TRIP’ 발매, 현대문학 시 부문 신인상 등단 등 다채로운 인생 이야기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그가 써내려간 아름다운 문장과 음악을 통해 관람객들을 ‘가까운 바다’로 안내한다.



내한다.

이야기를 건네는 이는 이상협, 이야기를 연주로 옮기는 이는 피아니스트 박상현이다. 박상현은 재즈와 클래식을 넘나드는 버클리음대 출신의 피아니스트다. 이 외에 전 광주시립교향악단 바순 연주자 김남훈, 이상협의 기타 연주도 함께 이어진다. 그의 자작곡 ‘사막별’, ‘검는 다’를 비롯해 빌 더글라스의 ‘함’,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느’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한편 11시 음악산책 하반기 프로그램은 아나운서, 건축가, 사진작가, 영화음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콘서트 가이드로 나선다. 9월 건축가 김종진, 10월 사진작가 안웅철, 11월 기타리스트 이병우의 무대가 준비돼 있다.

11시 음악산책 관람료는 전석 2만원이다.

도선인 기자



지난 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회의실에서 ‘2024 ACC 민주·인권·평화 웹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ACC 제공

ACC, 민주·인권·평화 웹툰 공모전 수상자 시상

‘평범한 시민’ ‘무주의 맹시’ 대상 수상작 총 20편... 상금 1800만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지난 1일 ACC 회의실에서 ‘2024 ACC 민주·인권·평화 웹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평범한 시민(오승현, 오수민, 강현, 박기령, 한지웅 작)’이 청년·일반부문에서, ‘무주의 맹시(이지민, 이다희 작)’가 유아·어린이·청소년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피로 이어진 의지의 계승(이세진 작)’과 ‘기다린 미소(최예원 작)’에게 돌아갔다.

‘평범한 시민’은 저항, 나눔, 그리고 연

대에 대한 내용으로 한 개인이 시민으로 사람과 모여 연대해 가는 과정을 잘 그려내 심사위원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 ‘무주의 맹시’는 역사의 뒤편에서 이름을 잃은 무명 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심사위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ACC는 청년·일반부문과 유아·어린이·청소년 부문에서 각각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5편 등 총 20편의 작품 수상자에게 상장과 총상금 1800만원을 수여했다.

ACC는 지난 4~6월까지 제출 받은 응모작 87편 가운데 주제 관련성과 작품성 등 평가기준에 따른 두 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확정했다.

수상작은 ACC 누리집, 누리 소통망

(SNS) 등 ACC가 운영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ACC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미래 세대에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확산하고자 지난 2018년 ‘ACC 민주·인권·평화 콘텐츠 공모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동영상, 웹툰, 영상 콘텐츠(UCC), 삽화(일러스트), 그림일기, 캐릭터 등 총 107편의 다양한 수상작을 통해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알렸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민주·인권·평화의 정신과 가치를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놀이패 신명, 마당극 ‘아버지의 해방일지’ 공연

23·24일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마당극 전문 예술단체 놀이패 신명이 마당극 50주년을 기념해 정지아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제44회 정기공연으로 선보인다. 공연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24일 오후 5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마당극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빨치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일간의 장례식장에서의 모습을 딸의 시선으로 그려냈다. 빨치산의 자식으로 세상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온 딸이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아버지와 그 주변 인물들의 기억들을 통

해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하고 새로운 인간 지평을 넓혀가는 내용이다.

작품의 각색과 연출은 지정남, 출연은 정찬일, 강근희, 지정남, 김정훈, 백민, 김혜선, 소지원, 이승학, 고동민, 음악 김현무, 무대 최재덕 등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한다. 신명 특유의 마당극 구성과 전라도 말맛의 정서, 베스트셀러 소설을 마당극화한 새로운 시도 등을 이번 공연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티켓 가격은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000원으로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이번 공연은 2024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도선인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